

반석과 열쇠

-소니아 워터즈(Sonia Waters) 공저

마태복음 16 장에서 베드로(시몬 게바)는 예수아의 중요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돌파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수아의 메시아 되심
2. 새로운 언약의 신앙 공동체
3. 영적 권위 위임
4. 마귀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

마 16:16-1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아의 계시를 받을 때 사람은 우주적 차원의 새 언약의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지체가 됩니다. 그 지체됨은 같은 정신을 가진 신앙인들의 지역적 공동체에 적극 참여함으로 표현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아에 대한 계시를 받음에 따라 우리도 예수아를 통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와 권위를 아울러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열쇠”라고 했습니다. 예수아의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는 그분 아래에서 권위를 받습니다 (눅 7:7).

영적 권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임합니다. 예수아의 이름을 통하는 직접적 방법, 그리고 지역적 공동체의 리더십을 통한 간접적 방법. 직접적이든 위임되었든 모든 영적 권위는 복종을 통해 임합니다.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보호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반석”입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조차 우리를 부술 수 없을 정도로 악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큰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땅에서 “매거나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풀립니다.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슈아의 개인적인 계시가 없고/없거나 소속된 지역 공동체가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베풀 권세가 거의 없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열쇠”는 영적 권위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예슈아의 계시입니다. “반석”은 지역 공동체에 적극적인 지체됨을 더불어 가진 예슈아의 계시입니다. 반석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열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쇠도 없습니다. 발을 반석 위에 딛고 있어야 열쇠가 우리 손에 있게 됩니다.

이슬람 민주주의의 희극

이번 주에 에르도안 Erdogan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군사 정권 장악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코미디언은 에르도안이 오존층에 생긴 구멍과, 팬더 곰의 멸종, 다이애나 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비난할 것 같다는 글을 썼습니다.

서구 세계와 미디어 대다수는 군사력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이 국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듯, 군대의 존재 목적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군대와 경찰이 함께 “민병대”를 만듭니다.

군사력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적법한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다. 많은 중동 국가들 가운데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데에 안정적인 힘이 되어왔습니다.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폭군에 의해 정부가 장악될 때는 군사력의 적절한 기능이 왜곡됩니다. 급진 이슬람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고 종교 표현의 자유를 부정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슬람 “민주주의”의 외형에 속아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르시 Morsi 는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취소시키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이집트 군대가 모르시를 축출한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세속주의자들, 온건 무슬림들과 콥틱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급진적인 이슬람의 정권장악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연합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번 주만해도 50 명이 넘는 콥틱 교회들이 무슬림 형제단에 의해 방화되었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정치적 형태보다 우선입니다.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을 선출한 것은 우리 시대에 독일 나치를 선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일회적 선거가 아닌, 사법 절차, 종교 및 지적 표현의 자유, 범죄와 폭군과 억압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에 의해 규정된 권위의 한계에 근거한 대표주의 정부입니다.

국제 사회는 이슬람 민주주의의 희극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도덕적 가치가 파괴된다면 선거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중동의 문제는 군대가 아니라,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이란, 터키에서 급진 이슬람이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민주적 선거가 아니라, 민주적 가치의 회복입니다.
